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강치영* · 권상철**

<차례>

- I. 서론
- II. 문학지리와 제주
- III.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 IV. 결론

I. 서론

세계 속의 제주로 부상하기 위기 위한 제주의 이미지 창출에 갖은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21세기이다. 명료한 이미지로 제주를 폭 넓게 인상적으로 부각시켜내지 못하는 어려움은, 결국 이미지로 탄생하기에 필요한 명료한 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은 동시에 제주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주거 장소와 공간에 대한 넓은 인식을 갖지 못한 채로 살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땅이 없으면 설자리가 없다. 공기와 마찬가지로 두발을 딛고 설 대지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제주에 살면서 '제주인'으로 생활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제주'이고 '어떤 사람이 제주인' 인지에 대한 구조화된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제주'라는 장소와 공간을 통하여 제주인, 즉 나의 설 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공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소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제주문학을 통하여 구체화 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제주는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의 한 영역으로 제주라는 곳의 장소와 공간을 문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문학 작품 속의 묘사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문인들의 감성으로 엮어진 공간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의 인문지리학적인 장소와 공간의 특색과 그 범위를 그려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 지리적 입지와 환경이 본토와는 달리 섬이라는 특수성(particular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역지리의 색채를 띤 가장 큰 이유이고, 또한 문학은 인간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찾고 객관화시키기 위한 공식을 찾는 다른 학문과는 달리 한 인물의 특이한 상황을 조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서, 문학 속의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문학 속의 성격을 찾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한편, 지도 위의 장소는 그 곳이 성격을 규명하는 환경과는 떼어서는 생각이 불가능한 것처럼 장소감은 그 곳에 있는 인간을 분리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주문학 속의 공간 탐색의 과정을 통하여, 첫째, 교통의 발달로 점점 좁아져가고 있는 현대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제주도를 작품을 통하여 인지하고 고찰된 작품 속의 공간으로까지 인지 공간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즉, 문인들로 하여금 장소감을 자극하고 공간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요소

를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작품 속에 살아있는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장소가 갖는 역사를 통하여 제주의 장소와 공간이 미래에도 물려주어야 할 지속적인 곳이 됨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셋째, 작가의 독자적인 장소 경험을 통하여 삶의 공간을 어떻게 확대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넷째, 작가가 창조한 장소와 공간을 공유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예술과 상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사람들이 생활하는 근거지로서의 장소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자연환경과 작가의 감정이 결합된 제주문학 작품을 통하여 그 속의 장소와 독자가 키워갈 친밀한 공간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 속의 공간을 답사하는 일이 독자의 장소에 대한 친밀감이 자아의 정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점차 웅색하게 작아지고 있는 제주의 생활공간과 제주다운 특이성(specificity)을 상실해 가는 현대의 삶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제주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을 형성해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II. 문학지리와 제주

1. 문학지리 연구

문학의 눈으로 지리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은 지리인들 사이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는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지리적 입지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실용성의 견지에서 공간을 읽는다는 것과 일맥을 이룬다. 투안에 의

하면 친밀한 공간을 갖는 일이 자아정체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 받는 장소가 반드시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장소는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생한 실체가 된다. 장소의 정체성은 개인적, 집단적 삶의 열망, 필요, 기능적인 리듬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된다.'고 한다.¹⁾

랄프의 기준으로 이를 정리해 보면, 그는 "장소와 몰장소성(place and placelessness) 소속감"에 대하여 설명하며 현상학의 생활세계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그 장소를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감(outsideness)과 그 장소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소속감(insideness)으로 구분하였다. 이 소속감 중에도 그 장소에 근본적이 없거나 자료 등의 간접자료를 통하여 어떤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간접적 소속감,' 어떤 공간에 모여 있는 장소들의 특성 때문에 그 장소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심리적 소속감을 가지거나 어느 장소에 특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형태적 소속감,' 어떤 장소에 소속감을 느끼지는 않으나 그 장소를 이해하고 친밀감이 더해져 가는 '감정이입적 소속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를 사랑하여 지리적 정체성까지 가지는 '실체적 소속감'이 있다고 논리를 전개하였다.²⁾

그러므로 문학속의 장소와 공감을 전체의 덩어리에서 분리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문학을 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간접적 소속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적 사고를 지리에 접목시킨 '박태순'의 『국토순례』는 한반도를 온통 아파하고 고민하고 끓어오르는

1) 정영철 역, 1995,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221.

2) 김덕현 외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pp.116-128.

국토에 대한 열정으로 땅을 답사코자하는 인간주의적 지리인식론을 잘 펴고 있다.³⁾ 또한, 유흥처럼 번져 가는 답사는 오락, 소일거리, 부유층의 행색의 하나로 치부되던 여행의 개념을 수직 상승시켜 놓았다. ‘유홍준’의 『문화유적답사기』⁴⁾와 같은 글들은 한껏 역사의식이 세련된 사람들의 취향을 자극하고 미적 취향을 고무시킨 성숙한 지리적 의식의 소산물이다. 딱딱하기 쉬운 차가운 땅에 고향이란 귀소본능을 추적한 이은숙의 공간의식⁵⁾도 문학의 세계에서 묶어본 한국인의 정서이다. 최근 문학을 이용한 지리교육이란 방향도 교실공간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지도법 이다.⁶⁾ 그러나 본격적인 문학지리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로는 심승희의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이은숙의 ‘문학 지리학서설-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이강은의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등⁷⁾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을 학교생활에서 찾아본다면 단연 수학기행이라 하겠다. 지리적 테마를 넣은 답사형식의 기획도 학생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⁸⁾

3) 박태순(1983), 『국토와 민중: 박태순 기행』, 한길사.

4) 유홍준(199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5) 이은숙(1993), 『문학작품 속에서 도시경관: 체만식의 탁류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소』, 제5권, pp.1-27; 이은숙(1996), 『조선인 이민의 북간도 정착과정과 공간인지: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제2권, pp.1-15; 이은숙(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 이민의 공간인지: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0권, pp.39-54.

6) 김종철(1996), 『오름나그네(제주도 기생화산 답사기)』, 높은오름; 정운현(1996), 『서울시내 인세유신 답사기』, 한울; 송기호(2002), 『민애날 찾이시: 만주, 연해주 답사기』, 도서출판 솔; 박우현(1997), 『나의 유럽문화 답사기』, 파피루스 등.

7)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3권, pp.67-84;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호, pp.147-166; 이강은(1988), 『빨치산의 문학적 형상화』, 『실천문학』, 제12권, pp.443-451.

2. 제주문학의 장소와 공간

문학에 나타난 제주도의 장소와 공간연구의 기본은 제주도 지리연구의 제반을 포함한다. 또한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장소와 공간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간접적 장소감, 공간감을 형성시키는 것이므로 보다 인문 지리적, 자연 지리적 소양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제주문학은 제주라는 자연지리적 환경을 빼고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제주라는 물리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제주사람들의 생활이라는 인문지리적 성향을 제외하면 제주문학의 특성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제주문학은 지리적 특성을 탁월하게 펼쳐놓은 전개도와 같은 역할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문학작품 속에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찾고자하는 이 연구는 제주문학이라고 개념 설정이 가능한 작품으로 제한하였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전형적인 제주도의 정서라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 문인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발간한 『제주문학전집 I, II, III』을 선택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 선집은 본 연구의 방향의 내용으로 채우기에 적절한 기준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 채록된 작품과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듯하다. 선집 밖에서의 문학작품을 살피고자 하는 경우, 작가의 선정과 작품의 선정에 따르는 미숙함을 덜기 위해서 ‘강통원’, ‘문충성’, ‘오성찬’, ‘현기영’, ‘현길언’ 등의 대표적인 제주작가의 정서를 주축으로 문학의 범위를 넓혀 갔다.

문학의 갈래로 볼 때, 주로 시와 수필, 소설 분야에서 머물렀으며 그 외의 시조, 민요, 설화 등의 분야는 언급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제주도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데 탁월한 제주어는 표기상의 문제와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아서 가장 많이 다루고는 싶었으나 실제에

8) 히로시, 도도로키(2000), 『(일본인의) 영남대로 답사기: 옛지도 따라 옛길 걷기』, 한울

있어서는 그 부분은 비껴갔다. 제주문학의 문헌적 고찰을 시간적으로는 한 세대를 앞선 시간적 공간에서 형성된 장소들은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장소라고 말하기보다는 역사적 성격으로 더 기울어지는 듯하여, 부모 세대 주변의 작가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살피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전해주고자 하는 정서를 생경함 없이 받을 수 있고 생활로 옮겨야 하는 부담감이 덜 한 채로 실용적 정서로 연결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하고 어려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고 단순한 마음으로, 제주에서 생활하는 제주 사람이고, 제주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보통의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어렵지 않게 동감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 요소들이 장소들을 찾아서 그 곳에서의 공간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연지리적 특성으로서의 탁월함과 동시에 제주문학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제주전설이 있다. 전설이란 세련된 문학적 형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교나 의도가 동원되지도 않은 변두리지역 사람들이 갖는 무의식적 꿈과 삶의 실상을 진솔하게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문학적 한 갈래이다. 제주 전설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섬과 같은 이미지의 주변성이다. 전설의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삶의 중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고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설 속의 사건들은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찌들고 초라하여 살피지 않으면 무시되어 지나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즉,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로 묶을 수 있는 일거리를 중심에서 다룬다. 제주 전설에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실분재발 해질에 줄 해질사불 비라는 제주사람들이 가공해낸 분재해질의 기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설 속 주변성의 특성이 시 소설에서도 녹아있다. 따라서 제주 문학인들의 심층에도 짙게 차지하고 있을 주변성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주로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문학작품으로 제한된다. 제주 문학의 범위가 넓고 그 문학인들의 사고와 경험이 탁월하게 깊고 넓은 것이라 그 작품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여 핵심을 추론해 내기에는 한계가 많아, 이 연구에서는 장소와 그 장소에서 형성되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제주인의 생활공간, 작업공간, 이념공간, 정서공간 등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발견된 공간들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장소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으로 일관되어 있다. 텍스트 분석의 인용에서는 제주어로 표현된 부분의 원형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포착하기 위하여는 직접 문학작품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경관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인식할 수 있는 지리적 요소들을 음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속의 장소 혹은 공간은 어디인가? 장소 또는 공간 속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그 속에 사람은 있는가? 사진 속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미지로 구성된 시를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는 방법을 택했다. 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어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시어의 빈도를 정리한 다음 최다 중심어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제주를 표현하는 시(詩) 영역에서 뽑히는 시어들은 하나같이 탁월하게 제주의 자연을 택하고 있어서 제주의 현장소와 마음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수평적 공간을 배경으로 나타난 수직적 공간이 형성된 섬의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바다 평원 위에 놓인 섬으로 존재하는 산(山), 그 산 속의 골과 곁을 넘나들면서 오르는 길과 내리는 길이 모두, 섬 안

에서 섬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이미지 속의 길을 떠난다. 다시 말하면, 제주문학 공간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자연 지리적 사실 혹은 인문 지리적 패러다임을 포착한다. 그것이 바로 작품 속의 중심어를 찾아 이미지화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작품 속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주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서를 다시 보듬어 마음 속에 품고 내 것으로 체득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자연공간으로서의 제주에서 시작해, 역사공간으로 인식되는 제주도, 예술공간으로서의 제주섬의 재구성, 생활공간으로서의 제주사람들의 땅, 미래공간으로서 문학인들이 갖고 있는 살고 싶은 공간으로 이어보았다. 위와 같은 작품의 구분은 일정한 플롯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냅사진을 펼쳐들고 사진의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작품 속의 텍스트를 갈무리하였다.

문학적 요소 또한 그 어느 하나도 연구의 대상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곳에 지리적 척도를 접목시키기에는 논지에 대한 소견이 짧고 미약하여 손을 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문학과 접목된 지리적 연구가 제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를 두 손으로 담아 모래의 수를 헤아려보듯이, 밤하늘의 별을 손으로 짚아 세어 보고자 하듯이 티가 나지 않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문학적 공간과 지리적 장소와 공간과의 일치하는 곳이 있으리란 생각으로 정리를 해본 것임을 밝힌다.

Ⅲ.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제주의 장소와 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가시성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즉 제주문학 작품 속의 장소와 공간은 독자의 시선을 끄는 제주이미지가 회화적으로 설정된 곳이다. 회화적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의 장소를 시인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무엇을 보고자 했으며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경관으로 현상되어진 이미지는 바다, 섬, 산, 땅으로 된 자연공간이 그 첫째 갈래이다. 제주의 땅은 온통, 돌맹이와 관련된 이름과 장소와 공간이 태반이다. 그리고 돌이 많은 자연적 환경을 적용해낸 돌하르방, 돌밭, 돌담, 섬팡, 빌레..... 섬, 바다, 돌, 바람, 그리고 삶의 터전인 제주 토양에서 오는 삶의 갖가지 면을 문학테스트로 읽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갈래는 역사공간이다. 제주사람들이 제주에 살아오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오고 후손에게 전해질 그 무엇들을 엮어보았다. 설문대할망 전설, 제주의 역사, 빈번했던 민란, 4.3, 관광제주로 이어지는 흐름을 역사의 공간에 담았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이나 문화적인 변용에 의하여 달라지는 성격을 지녔다. 제주섬의 역사의 흐름에서 4.3의 공간을 따로 묶어서 독립함으로써 4.3이 제주사람들이 정서와 삶에 끼친 영향과 중요성의 크기를 밀하고자 하였다. 시인들은 그 곳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장이다. 셋째 갈래는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담은 감정의 이미지를 가장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장소를 엮었다. 즉, 문인들이 읽어 내려가는 회화적 예술 공간이다. 문자로 나타내어진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회화로 완성한 그림을 읽고 있는 작품으로 '까마귀와 팽나무가 한 장소에 등장하는 공간'을 실

펴보고 지나가고자 한다. 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공간으로서는 추사적거지와 이중섭의 거리를 또 하나의 다른 예술 공간으로 넣었다. 그곳에서는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은 그곳이 어떻게 제주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느껴보고자 한다. 넷째 갈래는 생활공간으로 묶어 보았다. 제주가 곧 생존공간인 사람들, 즉 테우리와 해녀이다. 제주의 남성이 중심이 된 생활공간은 좀더 진취적이고 과학적인 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수평적으로 넓히고자 했던 사람들의 터전이다. 여지없이 솟아오른 물마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빼앗겼지만 그 아들들도 바다로 나아가려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생활의 터로서의 바다의 장소와 공간을 보았다. 모든 장소는 조직된 의미의 세계이다. 즉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은 제주문인들의 '제주라고 곳에 대한 느낌'(sense of place)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가고픈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전하고 있는 제주문인들의 작품을 다섯째 갈래로 미래공간으로 엮어보았다.

1. 자연공간으로서의 제주

1) 섬과 바다의 공간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찾기 위하여 별천 제주시집에서 시인들이 사용한 시어들의 으뜸은 '섬'과 '바다'이다. 즉 섬의 공간은 바다 위에서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수평적 바탕 면에 수직적 삼각형이 서 있는 청상, 끝위에 솟은 땅은 태평양 속의 한라산으로 솟아올랐다. 경관으로서의 제주도의 일차적 특성 또한 섬이다. 섬은 바다에서 보았을 때의 III임과 동시에 陸地로서의 성격을 포함한 영역이다.

섬을 형성하는 바다 역시 섬 때어서 생각할 수 없는 濟州島를 만든다.

일차적 요소만을 가지고 단순히 정서를 노래한 시인들은 서정시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제주시인들은 넘쳐나는 제주가 묻어나는 경관요소를 소재로 제주도를 그리고 있다. 제주시인들은 그들의 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어로써 '섬'을 선택하여 제주의 으뜸인 특성을 섬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바람 부는 섬', '흐르는 섬', '바람꽃 피는 섬', '아들을 낳은 섬', '파아란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섬', '물들이 들어오는 섬', '환상의 섬', '문주란 섬', '삼다도', '탐라섬', '버려진 섬', '하나의 푸른 섬', 그리고 '나는 그래도 섬이 그림다'로 작품화 하고 있다. 시인들은 제주의 섬은 제주 바다가 엄마의 품처럼 품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을 돌보는 육지가 되기 위한 섬은 그를 에둘러야 할 바다가 필요했다. 그래서 '섬'보다 더 많은 '바다'라는 시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제주바다는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그리움에 나라에서, 새벽에 바다에 나가면, 내 유년의 갯마을, 가을바다, 아침바다, 먼바다, 저녁바다,'로 육화(肉化)된 바다로 만들었다.

제주 섬은 바다에 선 제주 산이다. 바다로 솟아오른 땅덩어리가 있는 이 곳을 제주시인들은 '먼 산', '앞 산', '한라산에 올라', '휴화산', '산과 마주서서', '한라산', '백록담', '어승생', '오름', '산그늘', '먼 산 바라보기'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하여 제주사람들의 삶의 정서를 보듬는 공간이 제주 섬, 곧 산임을 보여준다. 시인들이 작품에 드러난 구체적 장소로는 '송악산', '마라도', '가파도', '섬섬', '문주란 섬', '미악산', '한라산', '제주해협', '성산포', '입석리의 산과 바다', '한라 산정', '세별코지', '성산포', '오조리', '서귀포 바다', '대포 해안', '강정포구' 등이다. 이들은 마치 바람을 타고 와서 바다 안을 흐르다가 한라산 주변에 한 형제들로서 있는 형상이다. 늘 그리워하는 하늘, 못내 잊지 못하는 한 가지로 난 혈육인 듯이 그렇게 솟아올라 서 있다.

제주도의 경관은 남도의 들녘에 쌓아놓은 벚단 같은 형세로 길 따라 흐르고 흘러 태평양 가운데서 오름처럼 일어나서 서있다. 오름처럼 일어서는 섬, 섬, 섬.....그리고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섬의 길 끝에는 놓여있는 겨울철 백록담으로 얼어붙은 길이 보인다. 때때로 그 길 자락에는 저승의 바람이 섬을 배어 넘길 듯 혹은, 때때로 바다의 그 깊이로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곤 하는 격랑의 바람 길이 되기도 한다. 큰 사랑을 헤아리는 위안으로 천만년 세월을 지새울 듯 서 있는 한 섬을 파도가 종일 그 이마를 쓰러준다. 하지만 영하로 얼어붙은 발길에도 길을 찾아 오를 수는 있지만, 진종일 걸어도 백록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산길 이었다, 섬에 난 길은.

섬을 떠나서 떨어져 보는 그 섬은 바다 가운데의 山, 山, 山. 섬을 만나러 가파도, 마라도를 찾았더니 그곳은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람의 영토였다. 제주 섬 공간을 드나드는 환경요소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중심시어는 ‘바람’이었다. 시인들이 본 바람은 ‘바람을 인정하며, 바다바람, 산바람, 들바람, 솔바람, 저녁바람, 한라의 바람소리, 제주의 바람소리, 바람으로 오는 어떤 신화’ 등이다. 바다와 섬과 바람이 서로를 움켜잡고 하나가 되는 곳이 제주이다. 파도의 일렁임으로 살아가는 칼바람은 떠나야 하는 파도에게 ‘꽃씨’와 ‘이야기’를 그 섬에 남겨두고 가기위해, 섬 없이, 끝없이, 들려주는 듯 파도의 움직임은 섬이 없다. ‘바람’, ‘안개’, ‘구름’, ‘노을’, ‘바다’, ‘황혼’, ‘꽃’, ‘가을비’, ‘제주 억새꽃’, ‘마라도’, ‘고근산’ 등의 시어를 등장시키며 제주인의 자연, 역사적 유적, 그리고 제주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담은 제주 시에는 자연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제주사람들의 정서가 끝없이 움직이는 바람처럼 살가운 삶의 움직임으로 다가온다.

언제부터인가 한 척의 표류하는 배가 떠있는 제주 섬, 푸른 섬 하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 배를 띄운 사람들이 있었다. 빛이 없는 캄캄한 항로에

좌초한 제주사람들, 온 가슴으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어른들의 마음은 온통 가슴앓이 사연인 듯 파도가 되어 부서지고만 있다. 우울한 성산포에서 나무 배 하나를 띄워 보낸다. 하지만 압류된 닻처럼 섬을 감싸고 부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테우 하나로 제주바다 건너온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들아, 테우 노 저어 저 바당 가자’고 흔들리는 부추 그림에 마지못해 끌려 나가는 듯이 <이여도>를 찾아서 배를 띄워 보자고, 솟아오르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뱃길 찾아 길 떠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은 삶의 공간을 찾아 바다를 건너 제주 섬에 왔다. 자신의 삶의 공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라산 백록담을 밟지만, 제주 문인들은 산을 떠나 제주 바다로 내려온다. 삶의 본질을 찾아서 심원하게 제주 바다 속에 가라앉고자 원고지를 펴고 앉았다. 백록담의 시원의 공간에서 내려와서 바다의 눈높이로 수평선으로 눈길을 준다. 파도소리 혹은 바람소리에 바다 위의 유영을 꿈꾸는 새가 되어보고, 바다를 디더 볼 ‘테우’를 만들고 삶이 솟아나는 곳을 찾아서 그 곳에서 심원하게 살고자 한다. 그러한 생각들은 ‘요지경’,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 ‘濟州의 봄’, ‘섬의 뿌리를 찾아서’, ‘파도의 울음’, ‘버려진 섬을 위하여’, ‘우울한 성산포’, ‘봄의 마을 西歸浦’, ‘겨울 백록담’, ‘테우’ 등 파 같은 작품에서 구체화 되어있다.

2) 섬안의 대륙

대륙이라 함은 모름지기 드넓은 땅에 사람들에 의해 명명된 ‘장소’를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곳이다. 지명이 있다는 것은 삶을 꾸리는 모습들이 사람들에 의하여 관찰되거나 그들에 의하여 차지된 공간이리라. 그러므로 그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탄생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장소와 한 몸

으로 굽이굽이 남아있는 곳을 대륙이라 하겠다. 전해온 이야기가 전해줄 이야기로 변하는 곳, 그런 장소가 많은 곳을 또한 대륙이라 한다. 솟아오르려다 한 숨을 쉬려 누워있는 오름이 뿌려져 있는 곳은 하나의 대륙이리라. 오름과 오름을 넘나들면서 끝없이 펼쳐진 대륙이라 인식한 그곳이 곧 제주인들의 생활장소이자 생활 공간이 된다. 바다로의 시선을 돌리기 보다는 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 발견한 자연물들은 발부리에 채는 돌과 그리고 생활을 위하여 오르고 내려야할 산이었다. 제주도의 육지의 경관은 마치 바다의 물결이 굽이쳐 출렁이다 언 듯 멈추어 선 형상이다. 오름과 오름의 너럭함은 파도와 파도 사이의 격랑을 잠재우듯이, 혹은 바람과 바람이 전투하는 숨 가쁨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전투에서 돌아온 바람이 쉬고 가는 자리이다. 격랑에 시달려 부딪치고 튀겨 나가는 물살만큼 거세게 부딪히며 휩쓸려가고 부서져 조각나야만 하는 바다 속의 바위들이 이제는 은퇴하여 전쟁의 역사를 회상하는 老將이 한 때의 혈기를 바람에게 선물로 떼어주기라고 하듯이 고망 승승 삭아져 가는 형상으로 돌이 되어 지천에 구르고 있다. 제주시인들의 무밭을 지나서 보리 밭 길을 걷고 있다. 무덤을 지나고 들판도 지나서 오름에 올랐다. 산록도로 따라 제2횡단도로 빠져보아도 돌, 돌, 돌담이 시인 따라 지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봄이 오는 산길에도 돌담을 쌓은 제주사람들은 삶의 향기는 돌담 틈으로 삶의 생채기는 돌담에다, 지나가야 할 것과 통과되어야 할 것, 체로 걸리듯 건져 올려야 할 것과 빠져나가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 길과 길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마치 시원과 현대와의 대문에 빗장을 걸 듯, 시인들이 돌담을 넘자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또한 돌담을 갖고 서있었다. 그들이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 중심시어들은 '발땀기', '섬피질', '땀방울', '생냥', '초냥', '밥풀', '자갈밭', '참깨', '띠풀', '산 까마귀', '알드르', '웃드르' 등이다. 그들의 정서가 구조화된 작

품들을 보면, '무덤 앞을 지나다가', '어머님 무덤에 핀 두견화', '봄은 산길로 오나', '돌아오는 길', '돌담', '구린굴을 가면', '벌초 길에서', '무밭을 지나며', '너븐 밭에서', '귤 밭', '니뿔 밭', '겨울 귤 밭', '동백마을', '유채꽃 피는 마을', '보리 밭 길', '교래 들판을 지나며', '오름', '다랑쉬 오름', '민오름 오르며', '산록도로를 달리며', '산길을 달리다가', '산을 오르며', '일출봉을 내려오며', '제2횡단도로', '성산포 가는 길', '고팡', '돌하르방' 등이다. 제주는 돌과 바람과 화산회토로 덮혀 있는 장소로서 삶을 일구어 땀을 쏟고 수확을 거두어 생활의 윤택함을 일구고자 애쓰는 이들의 손과 발을 힘들게 하는 경작 터를 보여준다.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정서는 수확물과는 비례로 바람과 파도와 돌멩이들을 만날 때마다 숨구멍을 찾아 해매는 힘든 호흡처럼 배어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문학 작품 속의 제주 땅에서는 작은 물줄기 소리도 들려온다. 마치 제주도의 지표수가 복류 천으로 숨어들 듯이 문순의 장대비를 만나 듯하다. 소나기처럼 내리곤 손살같이 사라져버린 하얀 물이 작품 속에 녹아져 있다. 어쩌면 제주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곡물처럼 거둬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생명 원이다. '팡들', '돌 할망', '물 허벅', '남수각', '장마', '물향', '염소', '살강아지', '청개구리', '한란', '수악 계곡', '무수천',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 '천지연'과 같은 시어들은 작품 속에서 응집될 수 있는 물방울이 되어 새로운 작은 샘터를 만들 것 같다.

제주시인들이 시원의 원형으로써 존재하는 자연공간은 제주 목장터이다. 몽고의 들판의 생명력이 제주 산에 뿌려진 시원의 땅으로 목장이 우뚝 섰던 공간을 다음과 같은 작품으로 그려본다. 짐승들이 자연의 섭리에 적응하여 진화하듯 그 속의 제주인의 생활 양식과 생활공간을 상상케 한다. '생각', '추억', '시인향', '지금 제주는', '나베시마 고려인의 영혼', '牧胡의 들을 지나며', '말젓빛 바람', '관덕정', '먼 타향에서', '방고애

무' '오로 섬 겨울나기', '강정천의 봄', '불일 폭포를 가다', '바위에 부쳐' 등이 있다.

2. 역사공간으로 인식되는 제주

1) 섬의 역사

제주문학 속에 나타나는 장소들을 보면, 자기가 많이 나는 자리왓, 메통이가 많이 나는 애여리왓, 심지어 산의 능선과 숲들을 대중해서 앞곶, 뒷곶, 고사리 곶이라 하고 바다의 지경까지도 이름이 지어져서 수확을 거두어내고 있음을 보았다. 자신들의 삶을 삶의 공간에다 명명함으로써 삶의 풍요성을 더하고 있다.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곶, 많은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하는 그런 대륙적인 삶의 공간을 가꾸고 있었다. 바다와 산의 공간에도 이름을 주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제주사람들은 대륙과 단절된 제주 섬에서 대륙인으로써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제주 섬에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디디면, 소와 말이 있는 곶의 초원에 닿는다. 그 곶은 이슬이 내린 수분을 품고 흙을 찾아 뿌리를 내린 초원의 생태계가 펼쳐진다. 그 곳에는 한시도 초원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섰던 하얀 꽃들이 스쳐 가는 바람결마다 곧이곧대로 흔들리며,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수직으로 선 역사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역새풀이다. 역새게 살아남아 그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한다. 설문대 할망의 옷 멩그는 이야기, 탐라왕국을 건설했던 왕족의 이야기, 재갈을 풀어헤쳐 들왓을 뛰넘겼던 꽃자왓들의 영웅으로 군림한 군마들의 이야기, 제주바다의 촛렁인 속으로 던져진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려했던 혹은 뿌리내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무엇보다도 파도가 실어온 바람, 꽃씨, 붓을 든 사람이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바닷가로 알 수 없는 인연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즉 생각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씨앗이 균락을 생성하고, 공감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존립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옥서시립'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 세수가 선으로 오르다고도 했다. 그들은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변별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생명인지 죽음인지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불타오르는 가슴이었던 제주인들이다.

제주 문학작품에 나타난 역사 공간으로서의 제주는 주로 사용한 다음과 같은 중심시어들을 이용하여 장소와 공간을 재조명하였다. '인동초', '5월', '절레', '안개', '유채꽃잎', '광복50년', '비바리새', '휘파람새', '하늬바람', '진달래꽃', '탐라섬', '몽고군', '삼별초', '삼신단', '삼방굴사', '관덕정', '설문대망', '오백장군', '불로초', '한라산정', '백록담', '초가', '동백꽃', '낙락장송', '종려나무', '사투리'와 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하였고, 시인들이 재구성한 제주역사의 장소와 공간이 나타난 작품으로는, '뿌리에 관하여', '그 꽃잎은 바람에 지고', '충혼묘지', '생활일기', '어느 무녀의 노래', '나이테는 푸르다', '월라산', '진달래꽃', '할미꽃', '도라지꽃 꺾이다', '불멸한 성군아래', '들절레 피는 뜻은', '황소와 탱크', '섬의 뿌리를 찾아', '숨은 꽃을 찾아서', '석양으로 걸어가는 푸른 발자국', '오월의 제주바람', '난 앞이 흔들리면', '유채꽃 맑은 날', '탐바리 전설', '영경귀 꽃', '청동화로를 닦으면서', '오늘도 고향 초가엔', '시들지 않는 꽃', '제주 수선화', '피뿌리꽃 I' 등이 있다.

2) 4·3의 공간

제주문학 속에는 불어오는 바람 따라 들려오는 이야기가 살고 있는 장소와 공간이 있다. 무심히 무심을 낳듯 귀만 있는 섬은 귀가 있는 사

람을 찾아 선 듯하다. 한라산자락 타는 바람마다 흔들리는 억새꽃 마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슬픔들이 대사를 빼앗긴 배우 마냥 말을 잃은 처연한 표정이 비통하다.

<제주도의회 4.3사건 특별위원회>가 1997년 2월 27일에 공식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양민 희생자는 무려 총 1만 4천 504명(신고: 1만 1천 665명, 자료, 증언: 2천 839명)이나 되었다. 가해자별로 보면 외지 세력이 중심이 된 군관토벌대에 의한 것이 83%(9천 674명), 토착의 민군 무장대에 의한 것이 11%(1천 314명)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물결치는 파도 따라 울렁거리는 바다와 정서를 같이하고 한 시도 쉬지 못하는 바람으로 제주 섬을 감장 도는 바람을 문인들은 해야 할 이야기,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로 제주 공간을 찾고 있다. 제주의 역사공간으로서의 4.3의 경험을 문학 속에서 찾아본 이유는 구체적인 4.3의 장소를 찾고자함에 있다. 투안에 의하면 경험은 수동성을 내포한다. 즉 경험은 어떤 사람이 겪어 오거나 견뎠은 것을 의미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건으로 유익함을 얻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숙한 인간이나 미성숙한 인간이 된다. 따라서 경험은 사람이 겪는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험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즉, 경험은 주어진 것(소여, the given)에 따라 행동하고 그 주어진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의 구조물, 즉 감정과 사유의 창조물인 실재이다.⁹⁾

제주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4.3의 공간은 이유 없는 죽음으로 더욱 원봉한 제주사람들의 가슴에서 상숙한 정시로 피어나시 사유할 수 있는 장소로 탄생할 것을 한결같이 염원한다. ‘지구의 피’, ‘억겁의 한’, ‘산비

9) 정영철 역, 1995,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14.

탈', '꽃 깃발', '여정', '바람과 억새꽃', '격전의 전초지', '태풍권', '생명선', '비폭력저항', '선혈', '쑥대밭', '제주의 자존', '저항하는 깃발', '제주의 꽃', '호미꽃', '한미남', '보리밭', '신세', '초기', '4월', '유채꽃밭', '죽창', '깃무덤', '목탁소리', '해탈문', '진달래꽃', '4월3일', '절레꽃', '개똥밭', '한라산' 등으로 그 사연이 많고 깊고 치연한 채로 지천에 퍼져 지울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눌려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끝이 없는 노래처럼 장엄하게 전개되고 있다. '억새꽃 들뜰에 서서', '기억의 잎새', '제주 억새꽃', '바람과 억새꽃', '억새꽃의 춤', '억새', '비 오는 날의 억새밭은', '가을의 시', '제주도를 노래한 시집', '제주 4.3을 노래한 시집', '피사체로 나앉은 가을', '사월의 끝' 등이 있다.

3. 예술공간으로서 재구성된 제주섬

1) 까마귀와 팽나무

제주문학의 작품 속에는 전설이 하나 자라고 있다. 대천 바닷 위의 너브작한 섬에는 설문대할망이 짜려했던 마지막 한 벌의 옷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서만 들려주는 미완성의 옷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찾아야 할 비법인지라, 돌, 바람 엮은 땅이 옷감 인 줄은 팽나무의 까마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보면 전설의 옷은 할망의 소원처럼 열심히 운명처럼 만들고 또 만들어 왔지만 어떤 옷으로, 누가 입을 지, 언제 입을 것인지, 그 모두가 신비인지라 아무도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만큼이 완성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이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전설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언뜻, 까마귀 한 마리가 그 옷을 보았다. 할망이 말한 옷을 제주 섬이 입었다는 것을 보았다. 바람 부는 가을 어느

저녁에 억새꽃으로 채단 된 너른 경작지를 보았다. 돌 틈에서 자라 바람을 타야 웃을 수 있는 억새꽃이 제주도의 웃이 되어 주었음을, 팽나무 위의 까마귀 한 마리는 전설 속의 웃을 찾아내었다. 바다 위로 가야하나 들판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마을로 가나, 날아 갈 곳을 찾아 바람을 찾고 있던 까마귀는 乾川이 만들어 놓은 깊고 넓은 이랑 사이 그 틈 새로, 잔 뿌리, 긴 뿌리, 생명의 뿌리를 처연히 드러내며 서 있는 팽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다. 설문대할망의 후예들은 웃을 지어야 함을 그리고 자신은 '날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던 까마귀는 문득 제주도를 본 것이다. 그 때는 온통 섬의 하늘로, 섬의 바다로, 수평선 너머로 뚝배가 되어 바다 갈매기처럼 섬에서 받은 운명을 떼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팽나무에 바람이 머문다.

제주문학의 작품에는 제주 땅에 실존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이유가 생략된 울분, 분노, 수난, 설움, 흔들림이 구름처럼 따라 다니는 인간이 그려지고 있다. 답답함, 그렇저렇 살았 시든 살아진다는 한마디로 말을 다 해버려서 '어떻게, 무엇을'에 관한 小論이 싹을 퍼지 못하고 씨앗인 채로 가슴에 몇 년이고 남아있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말문을 열어 줄까봐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으로 말 생략이 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혼자서 꿈을 꾸다. 막연히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은, 바람같이 잡히지 않는 연기의 한 자락 같이 생겨난 생각이라 옆 사람 붙잡고 들려줄 인간의 목소리 한 음절 발화되지 않는다. 머리 속에 그릴 뿐, 始原을 향한 그림으로 남을 뿐, 바다소리, 바람소리에 인간의 소리를 잠을 제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상상을 한다. 바다속, 바람속,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예술 공간으로서의 팽나무와 까마귀로 나타난다. 팽나무 위의 한 마리 까마귀로 그려진 제주의 모습은 한 편의 회화

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투안에 의하면, 인간의 공간조직은 독특하게 시각에 의존한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밀접히 관련된 과정이다.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보는 것은 빛의 자극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선택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 환경의 자극은 목적적인 유기체의 의미 있는 기호(sign)를 제공하는 유동적인 구조로 조직된다.¹⁰⁾

제주시인들이 그려낸 예술공간 속의 나무와 새, 생활의 뿌리를 잊지 않고 버틴 팽나무와 까마귀 울음소리로 바람 잘 날 없는 제주인의 삶을 말해주는 듯하다. 시인들이 주로 사용한 중심시어들은, '유채밭', '밀감꽃', '콩밭', '유도화', '보목리', '상사화', '한라산', '산방낙조', '평대리', '보리피리', '누님', '사금파리' 등이다. 뿌리를 헤쳐 땅 속으로 파고든 팽나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정작 인간의 말을 뱉지 않는 까마귀의 울음으로 팽나무 마을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시인들이 구성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의 가시성이 뛰어난 작품으로는 '기러기', '시인과 예언', '새끼 새 한 마리', '대천동 계곡의 피리새', '한라산 매미', '제주 휘파람새', '벼랑의 새들', '한라산 빼꾸기', '까마귀', '까치 밥', '산 까마귀', '비바리새', '새는 숲에만 사는 게 아니다'가 있다.

2) 추사적거지와 이중섭의 거리

제주문학의 작품 속에 한 채의 조형공간이 등장한다. 바람과 돌로 역사를 만들어온 제주 사람들이 들판에 처연한 억새꽃을 피우더니 사람이 깃들여 사는 곳으로는 바람이 조용하게 머물다 가도록 키 낮은 모습의

10) 정영철 역, 1995,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15.

초가를 지었다. 정의현 바당이 일어서서 바람을 보낼 때는 모슬봉 기슭에서 한라산 길로 이어지도록 제주 초가 안, 박거리를 안성마을에다 재현하였다. 인간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 길에 올래를 만들어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과 대문을 연결하였다. 추사의 적거지, 이중섭의 거리를 모슬포와 서귀포에 각각, 떠나간 사람들이 그리워져서 자꾸 찾아오고픈 사람들이 설게하였다. 영혼이 거주하던 사람의 몸체는 썩어서 흙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공간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로 世世히 남기고자 하였다.

초가가 있고 장독이 있는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 안 거리가 있고 박거리를 지나 이중섭의 걸었던 올래를 그곳에 놓아본다. 모슬포의 바닷바람 코지에 가짜를 태워버렸던 어린아이만큼 한 영혼의 순수를 지키며 살아낸 이중섭의 거리는 갯마을의 비릿함과 짝조름한 바닷바람에 몽그러 들지 않을까. 풋성귀가 소금에 절려지듯 순수함의 결정이 강하게 남아있을 것 같다. 황소의 뿔로 황소의 독지로 황소에게 말을 거는 그의..... 철저하게 주변인이 되어 완벽하게 주변인으로 간 그가 현대의 공간에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공간에서 살면 어디로 향하는 세계로 이어주는 길을 만나게 될까? 그 길을 걸으면 우리가 밟는 땅은 어디에 즈음이 될까?

사람이 짙어진 운명은 살아내는 이의 의욕을 비껴갈 때의 이질감. 삶의 과녁을 향해 매진하면 할수록 운명의 과녁으로 빨려 가는 힘. 만들어내고자 하는 길은 가야하는 길을 정녕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삶의 궤도에서 치인하게 부생한 시립들의 삶은 세세이 시립들이 비움속에서 각인 되어 살아간다. 시간을 초월하여 생각나는 것,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찾아지는 것,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있어 위대한 것이라면 제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다시 와서 살게 된 이들의

위대함은 평범한 자들의 발길을 동여맨다. 그가 처절히 가난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했었을까? 게, 닭, 물고기, 나무를 사랑했던 이방인. 이제는 '신화'가 된 그의 '일상의 이야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겨우 작품 몇 점 팔아 생긴 돈을 거리에서 만난 불쌍한 사람에게 몽땅 주어 버렸고, 아궁이에서 그림을 불쏘시개로 쭈셔놓고 태우며 "잘 타라, 잘 타라, 가짜 그림아" 하고 중얼거린 대구 여관생활 할 때의 이야기..... 배를 타고 제주 바닷 건너온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문학작품 속에 나온 제주 사람들은 말이 없다. 자연의 이야기를 듣기에 능해서 많은 것을 생략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말은 '산다'와 '죽는다'처럼 지극히 생략된 크고 무거운 것들을 '사노라면' 한마디로 묶어버린다. 말깨나 하는 사람, 글깨나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난 것은 참으로 축복인 셈이다. 바닷가에 싸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별다른 소꿉놀이가 없는 그들에게 말과 글은 조근조근 해야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시대에서 격리되어 그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만났다. 그들은 제주사람들의 삶을 승화케 하였다. 소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알고 있는 삶에 인간으로서의 노동의 숙연함을 인식할 것을 명한다. 이중섭, 그는 일제와 6.25 전쟁에 갈기갈기 찢기고 내버려진 삶과 영혼이었다. 그나마 서귀포는 그런 그에게 있어 가장 안정되고 행복했던 시간. 한 평 남짓 서귀포 골방에서 <황소>와 함께 <서귀포가 보이는 풍경>, <해변의 가족> 등 바다 소재의 작품을 남겼다.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사람들은 추사 적거지에 집을 지어 살고자 한다. 모슬포 풍랑을 두 손으로 받아내어 한라산으로 오르게 하고, 상모, 일과 바닷가에 그물도 던지고 배도 보내며 너른 공간 휘휘 하는 바람처럼 움직이며 살고자 한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바람에 깃들여 산다. 초가 집이며 너른 밭이며, 오름, 빌레왓에 자신의 살아있는 움직임으로 삶의

공간을 느껴나간다. 보리, 마늘, 감자를 키워보고 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새벽 안개와 함께 육지로 돌아오는 바닷길을 떠나보고 바다를 안다. 바다로 발로 삶을 찾아서 움직임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감각은 생활이 곧 예술인 한 가지가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았던 처음을 보여준다.

장소는 대상의 한 유형이다. 장소와 대상은 공간을 정의하고 공간에 기하학적 속성을 부여한다.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총체적일 때, 즉 적극적이고 반성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대상과 장소는 구체적인 현실성을 얻는다. 제주문학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술의 공간으로의 장소로는 '추사관과 이중섭의 거리'를 들 수 있다. 유배생활을 직접 겪어내면서 완성된 추사의 예술혼과 피난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이중섭의 영혼이 깃들여 있던 제주를 오늘에 재현한 장소이다.

그들을 기리고 있는 시인들의 중심시어들은, '제주바람', '대정골', '귀양', '연복장', '유배지 일 번지', '추사관', '모슬포', '세한도', '단산', '청동화로', '유배지', '녹슨 종', '겨울하늘', '바람개비', '편지', '동박새', '억새 밭' 등이다. 그것들은 삶과 유리된 생활에서 오는 갈등이 승화과정을 상상케 한다. 순수한 영혼을 사모하는 시인들의 유배지를 재구성한 작품으로는, '변방일기', '가난한 肖像', '가시의 추억', '오늘도 고향 초가엔', '외로운 추산', '연가', '연', '청동화로를 닦으면서', '미루나무가 있는 풍경', '서신', '세한도 너미로', '유리네 집', '자기 땅에 유배된 사람', '좁은 방', '유배지에서', '유배지로 가는 바람', '억새 겨울나기' 등이 있다.

4. 생활공간으로서의 제주

1) 보제기들은 밤에 떠난다. 그들의 땅으로

제주문화 속의 장소와 공간을 찾아서 제주바다를 지나고 제주 섬에 닿았다. 모두가 한색이 되는 밤이 되면 보제기들은 움직이는 양식이 있는 땅을 향하여 배를 놓고 있었다. 가장 검은 색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땅에서 보았던 양식을 찾아 바다로 배를 띄운다. '빌레' '여'들은 바다의 얼굴에 솟은 코이거나 소용돌이 물길의 눈이 생겨나는 급류가 감장 도는 곳이거나 차가운 물길이 바람처럼 흐르는 물살인지를 살펴야만 한다. 뱃길에서는 언제나 보이는 것이 솟아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바닷물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장판이 한 장으로 펼쳐진 방바닥처럼 수평으로 놓인 바다 물 속의 세계는 막힘 없이 펼쳐진 모양과는 다른 세계임을 목이 잠기는 곳 너머 나가본 적이 없는 포구 아이들도 모르지 않는다.

포구 아이들에게 바다는 다른 곳에서 비교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이다. 늘 오는 바닷가이지만 한 번도 같은 즐거움을 준 적이 없었다. 행여 돌에 무릎이 까지고 발바닥이 찢기고 수영하다 쥐가 나도 단 한번도 불행의 느낌을 갖은 적이 없었다. 그들이 바다와 만날 때는 늘 만족감, 행복, 그리고 즐거움과 또 다른 세계를 정복하는 기쁨이었다. 자바리가 다니는 '고기올래'의 상황은 나만이 알고 있는 작은 세계가 되어 주고 있음을 바다가 놀이터인 아이들은 느끼면서 크다. 노래기, 우렁, 자리돔, 불락들은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이 가물가물 할 때도 '고생이통', '자리빌레', '불락통'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되어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면서 생활한다. 그들의 보제기 할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원 한바퀴를 제 힘으로 넉넉히 헤엄쳐 건너던 날의 환희를 기억하는 포구아이들은 대천 바당으로 나가는 꿈을 키운다. 사랑을 위하여 문어할 뱀에게 혀를 저당 잡혔던 인어공주처럼 모험심을 저당 잡혀 육지로 나가 보고픈 중심에서의 생활에의 미련을 젊은 시절의 객기처럼 방출해본다. 바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바다사람이 되기에 참으로 넓고 멋진 공간으로서의 상상을 함께 해봤으면 한다. 제주 문학의 많은 페이지를 바다의 공간으로 남겨놓고 있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성인의 감정과 사유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공통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유아에서 시작한다. 때가 되면 유아의 작고 혼돈한 세계로부터 성인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또한 성인의 세계관은 잠재의식으로 혼동되어 있지만 경험과 개념적 지식의 구조로 유지된다. 제주문인들이 바다에 대한 공간을 그리기 위하여 사용된 시어들은 주로 ‘주낙’, ‘멸치배’, ‘통발’, ‘삼각파도’, ‘한림항’, ‘갈 바다’, ‘떠나는 배’, ‘성산포’, ‘일출봉매기’, ‘가을바다’, ‘감성돔’, ‘오조리’ 등이 있다.

제주 문인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어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변해 가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통해 제주사람들의 정서와 함께 다양한 공간감을 다음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그려놓았다. ‘파아란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우울한 성산포’,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물들이 들어온다’, ‘저녁바다’, ‘갯마을’, ‘내 사랑 서귀포바다’, ‘성산포에서’, ‘파도에 게’, ‘수평선’,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대포해안에서’, ‘나는 그대도 섬이 그림다’, ‘버려진 섬을 찾아서’, ‘섬의 뿌리블 찾아서’, ‘파도의 울음’, ‘제주해녀’, ‘강정포구’, ‘바람꽃 피는 섬’, ‘제주 섬을 돌아다보면’, ‘먼바다 푸른 섬 하나’, ‘섬을 위하여’, ‘섬은 아들을 낳고’, ‘바다의 사색’ 등이 있다.

2) 숨비소리가 들리는 곳

제주문화 속에 넓게 펼쳐진 바다 위를 보제기들이 배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바다 깊은 속을 헤쳐 달을 땅을 짚기 위해 잠녀들이 물구나무를 선다. 바다 밑을 향하여 꽃히고 싶은 잠녀들은, 마치 삶을 뒤집어 본 세계에서 더욱 당당하듯, 밑으로 밑으로 들어갈 때마다 상군으로 군림한다. 최상의 생기(生氣)로 삶을 건너고자 테왁의 숨 줄을 매달고 사계절을 하루 같이 바다에 몸을 던져 생활을 건져낸 여자들이 전복의 상채기가 진주가 되어 커가듯 제주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마음의 진주로 빛나고 있다. 제주 섬의 주요 지리적 경관인 바다는 제주 여성들의 작업공간이다. 집안에서의 작업공간에서 자연의 경계 없는 바다로 삶을 캐는 공간으로 확보한다. 때를 구분하지 않고, 바다와 물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노상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해녀였다. 너른 바다를 확보함으로써 그들은 제주 섬의 어디에나 있었고 직관적으로 여자들이 많다는 이미지를 낳았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가 노동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재화를 축적하였고 사회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생활하는 독립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러한 강인함은 생득적으로 체험된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제적 자립이 건강한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됨을 몸을 아끼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는 바지런함으로 이데올로기의 문화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물러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제 몸 속에 흐르는 혈액인 냥 흘러오고 흘러가는 체온으로 바다의 깊이를 재는 잠녀들이기도 한 그들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숨비소리가 숨어있다.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스며있는 곳 물의 결속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가려진 소리가 무심한 일상의 사람들의 무정한 삶에 깃든 생명의 소중함을 흔들어 깨운다.

얼마나 넓은 공간이기보다는, 얼마나 깊은 세계인가에 본능적으로 작용한다. 바다의 얼굴 위로 솟아 오른 것들은 수평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관계이다. 뻗어나고자 하는 힘만큼 확장되는 공간을 그리고자 하는 보제기들과는 달리 잠녀들은 깊어져서 초월하고자 한다. 삶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올라 올 때마다 달라진 숨소리, 달라지는 폐활량, 생겨난 자신감, 솟아오름으로 인해 연장된 수직적 길이를 확인한다.

바다의 심연에 닿고자 고개를 들고 내려다보는 바다 속의 층층마다 지상의 산소를 놓고 온다. 버틸 수 있는 시간만큼 두 손에 움켜진 삶의 묘약을 생명의 근원을 캐며 삶의 진화를 꿈꾼다. 혈관에 흐르는 혈들이 되어 소진한 육체를 올려주는 파랑의 속삭임에 귀를 내준다. 파랑과 파랑의 절과 절 사이에 오늘의 숨 비운 호흡을 숨겨놓는다. 솟아오름의 존재방식은 뿌리내림이다. 절랑 속에 몸을 맡길 만큼의 든든한 해근(海根), 호수 면의 수평면아래 도도히 흐르는 해류의 꿈틀거림을 체표에 기억하고 오는 해녀들, 그 힘의 용트림이 솟아 나옴을 느끼기에 그들은 침묵한다. 물결에 흔들리는 움직임만큼 체득하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이란 걸, 시원의 신비로움이 혈맥을 타고 흘러준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기꺼이 숨 비우고 집중한다. 바다 속으로 인간의 잊었던 시원의 장대함에 숨 길 이 편해움을, 들과 바람은 또 하나의 시원이 되기 위한, 역행할 수 없는 지속적인 것들의 에너지의 흐름 위에 있다는 것을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고 스스로의 소멸의 운명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들은 숨 비우기를 숨 채우기를 그 한 시 설 수 없는 수직으로의 운동을 한다. 아마 그것은 숨을 달라는 간절한 인간의 바람, 소망, 염원, 선망, 희망의 무의식적인 기원일 것이다.

자신의 온몸으로 바다를 익히고 길들인 생활공간인 숨막히는 바다 공

간에서 그들은 삶의 의욕을 더욱 부추기며 의욕적인 삶을 꾸려왔다. 남성들의 활동 무대로 여겨지던 바다로 나아간 제주해녀들은 텃밭보다도 살가웁게 바다를 일궈낸다. 신체적 능력만큼 경제적 부유함이 허락되는 바다를 접하면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읽어낸다. 살아 내야하는 생물학적 욕구와 가계를 책임져야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제주해녀들의 사회적 역할을 시인들은 다음과 같은 시어들로 대신 말한다. 즉, '무거운 짐', '우유 값', '섬', '운송청구서', '바람', '바다', '전복', '소라', '비바리', '바가지', '물살', '처녀', '바다', '갈매기', '해녀', '살림살이', '생명줄', '산신대왕', '서낭대왕', '칠성판', '세상 길', '영혼', '미역줄기', '4월', '춧대바위', '절벽', '쑥부쟁이', '그리움', '숨비질', '죽창', '순사', '세벌 코지', '난파선', '해녀', '태왁', '섬처녀', '누이', '호흡', '폐활량', '일출', '파도 소리', '태풍'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주시인들이 해녀들의 작업공간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서는 '소라 껍질',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해녀의 겨울', '이어도', '해녀의 손금', '날개 접은 아기장수', '해녀의 노래', '이어도', '슬픈 해녀' 등이 있다.

5. 미래공간 : 가서 살고 싶은 곳, 제주

제주 문인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서의 제주에는 '군마도'에서 들려오는 발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다. 대륙을 달리는 말떼들이 갈기 휘날리며 한라산 등마루를 오를 내렸을 웅대함이 숨쉬는 제주 초원을 그리며 태고의 장대함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곳. 수평선을 따라서 끝없이 달리고 싶은 어승생 오름의 어승마가 자신의 발굽소리를 잊지 못하듯, 어승마로 남은 한 소년이 살고 있는 땅. 하지만 '섬'이라서 잉태된 배고픔, 외로움, 그리움이 인간 본성의 하나인 채로 '섬'은 '섬'인 채로 '섬'

이 되어 남아있는 곳, 濟州島.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미래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작품으로는 시인들의 추억으로 재생된 공간이 된다. 도시나 토지는 어머니로 간주되며, 그것은 자양분을 제공한다. 즉, 장소는 정감 어린 기록의 저장고이며 현재의 영감을 주는 찬란한 업적이다. 또한 장소는 영속적이며, 그리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어디에서나 우연과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안심시킨다.

미래의 공간으로서의 제주를 살펴볼 수 있는 시인들이 주로 사용한 중심시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시인의 고향', '듬박새', '감꽃', '한라산 횡단도로', '집어등', '감 꽃', '어머님', '누이야', '제삿날', '할머니', '죽은 년', '굴거리나무', '이승', '심장', '산 수국', '매화', '매꽃', '사투리', '갈치국', '자리짓', '호박' 등. 이러한 중심시어들이 만들어내는 시인들이 경험을 엮은 작품으로는, '생각', '나베시마 고려인의 영혼', '지금 제주는', '내 고향의 가을은', '오일장에서', '내 사랑 한림 향', '용두암', '牧胡의 들을 지나며', '히말라야', '관덕정', '송악산', '먼 타향에서', '방고애무', '추억', '시인향', '성산포 가는 길', '성판악 도로의 추억', '꿈속에 소망 뿌리에게', '나는 그대도 섬이 그림다', '섬섬', '유리네 집', '한라산 백록담', '바람꽃 피는 섬' 등이 있다.

IV. 결론

제주의 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은 그 안에서 적용하는 인간의 체험하는 제주사람의 삶의 현장을 그려내고 있다. 제주문인들은 그들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제주 공간을 채웠다. 바람을 타고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리움을 인지하고 한라산 지라에서 오류의 테우리들과 함께 태위

지던 양민들의 원통함이 제주사람들의 가슴에서 흐느적거리는 춤을 출 때 더 이상 역사, 바람, 바다,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제주 땅에서 삶을 일구어 온 제주 선민들 투쟁한 삶의 결과이다. 물은 목마름에 의해서 배워지고 땅은 바다를 횡단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제주문학의 작품을 통하여 제주도의 풍광을 느끼고 알게 되었다. 문인들의 정서적 체험과 함께 동반된 자연적 풍광이 제주사람들의 생활하는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피어나 흔들며 제주들판을 지키는 풀꽃이 이제는 역사 춤 속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많은 제주인들의 한이 춤추고 있는 제주 자연공간으로 보인다. 깊이 뿌리내린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에 머무른 바람이 단순한 산바람 바닷바람에서 벗어나 제주 역사공간에 등장하는 4월의 바람을 잊지 않게 되었다. 바다를 찾아 몰려오는 각 처의 피서인들 속에 함께 있지만 생활공간으로 인식되는 제주해녀들의 삶을 캐기 위해서 격랑의 바다를 수직으로 드나들었던 숨비소리가 깃들인 물결의 속이라는 것음 온 몸으로 느끼진다. 제주해녀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울분과 격동이 현재에서도 살아남을 느끼며 점차 복잡해지고 개별공간에서의 의미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과의 공감을 자아내는 시각을 찾기 위해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장소와 공간을 보았다. 포장풍선을 타고 수평선 너머로 바다를 경험하고자한 보제기들처럼 좁아지는 땅을 넓히고자하는 개척정신을 찾아 보았다.

제주 문학 작품 속에 표출된 제주의 장소와 공간은 자연환경이 근저가 되는 자연공간에 대한 인식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삶을 엮은 역사공간, 생활공간, 활동공간, 작업공간, 동시에 미래공간으로 보인다. 대양에 뜬 한 점, 제주 섬에서 출발하여 사방 팔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머리 속에 그려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뻗어나갈 곳이 갑자기

트이는 시원감이 느껴진다. 이런 제주도의 위치에서 땅 위로, 바다 위로, 솟고자 하는 한라산의 기상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론가 불어가고자 하는 바람의 소원을 들려줄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주의 지리적 상상력을 캐어보았다.

주제어

섬, 바다, 장소감, 정체성, 제주문학

참고문헌

- 김덕현·김현주·심승희·유킴(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 김종두(2000), 『제주 방언시: 사는게 밋 산디』, 영주문학사.
- 김영화(1992), 『문학작품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濟州島研究』 제9권, pp.3-15.
- 김혜숙(1996), 『문학작품을 이용한 지리수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순태(1983), 『유배지』, 어문각.
- 문충성(1986), 『내 손금에서 자라나는 무지개』, 문학과 지성사.
- 박태일(1994), 『김영수의 시와 문학지리학』, 『한국문학논총』 제15집.
- 손명철 편역(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심승희(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3권, pp.67-84.
- 양진전(1993),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 이경우(1984), 『문학의 주제로서 지리공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목(1980),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대하여』, 『建築』 제94권, pp.54-57.
- 오성찬(2002), 『보제기는 밤에 떠난다』, 푸른사상사.
- 이은숙(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호, pp.147-166.
- 정영철 역(1995),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제주도문화자료총서 8(2001), 『제주여성문화, 삶과 문화이야기』, 제주도
제주문인협회 편(1993-1999), 『제주문학』, 제주문인협회.
- 제주문인협회 편(1996), 『제주도문학전집 I, II, III』, 제주문인협회.
- 제주문인협회 편(2002), 『제주문학』, 제주문인협회.
- 제주작가회의(1999-2000), 『제주작가』, 실천문학사.

- 제주작가회의(2001), 『43소설 선집: 깊은 적막의 끝』, 도서출판 각.
- 조혜정(1988), 「발전과 저발전: 제주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 좌혜경(1995),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 진성기(1968), 「남국의 민요」, 『제주민요총서』 제3권, pp.114-125.
-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1999), 「가서 살고 싶은 섬, 제주, 디딤돌.
- 현기영(1994), 「마지막 테우리」, 창작과 비평사.
- 현길언(1997),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14권, pp.35-51.
- Entrikin, J. N.(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20, pp.215-221.
- Gibson, E.(1970), "Understanding the subjective meaning of places", *Humanistic Geography*, pp.138-139.
-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Shortridge, J. R.(1991), "The concept of the place-defining novel in American popular culture", *Professional Geographer*, Vol. 43, pp.280-91.
- Tuan, Y. F.(1970), "Literature and Geography: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Humanistic Geography*, pp.194-205.
- Tuan, Y. F.(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 and Sp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Kang, Chi-young* · Kwon, Sang-cheol**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the place and the sp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This study traced the poet's thoughts of space and place on Jeju's surface in literature. The typical places and spaces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nature space in Jeju. The nature composed of environment, the sea, islands, and mountains lays the background in Jeju literature. Second, it is the history space of Jeju. It is the space interpreted in a historical view. The space and the place depicted in Jeju literature are differently translated its meaning and importance in the change of history and culture. Recently, the position of Jeju is changing into the visiting place. In literature, Jeju has no speech for a long time. As a background or scenery, Jeju has a lot of winds, stones, and women. In their harmony with nature environment, they want to speak of the complete life of Jeju. Through 4.3 event, and trivial uprising events they wish to definition who are Jeju people. Third, it is the art space of Jeju. This chapter helps us understand how artists feel about the space and the place of Jeju, taking the people's different mode experience from the others' into account. Arts in Jeju literature has accessed to states of mind, thought and feelings of people for a clear

* Teacher, Jeju Jungang Girls' High School(uilhouse@hanmail.net, 016-689-2299)

** 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Ch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wonsc@cheju.ac.kr, 064-754-3234

definition of flowing of life. Fourth, it is the life space of Jeju. Here are tied space and place shown how people adjust to their environment depicted in Jeju literature. Fifth, it is the future space of Jeju. People don't always change their environment. Frequently, the environment changes the course of people's life. For instance, people change an island into a land, but they make an island just keep an island itself.

This study is surely an individual effort to get more familiar identities of Jeju. Like growing a tree of the sense of the place, Jeju, we live in a space and a place with winds, stones, sea etc, which are basic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s of Jeju. In conclusion, the study is an attempt to achieve a more coherent statement of 'space' and 'place' with familiar words denoting common experiences discovered in Jeju literature.

Key Words

island, sea, the sense of place, identity, Jeju literature

교신 : 권상철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E-mail : kwonsc@cheju.ac.kr 전화 : 064-754-3234)

김치영 690-825 제주시 이도2동 612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E-Mail : uilhouse@hanmail.net 전화 : 016-689-2299)

최초 투고일 2006. 5. 27

최종 접수일 2006. 6. 22